완도 '전복'·여수 '교육'·화순 '백신'·강진 '청자'·보성 '녹차'

올 '우수 지역특구' 선정

완도 '전복산업 특구'가 2년 연속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되는 등 전남도내 5개 시·군 특구의 성과가 눈부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지역특구 합동 연찬회를 갖고 여수시 '관광국제화 교육특구'와 완도 '전복산업 특구', 화순 '백신산업 특구', 강진 '고려청자문화 특구', 보성 '녹차산업 특구'에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완도군은 김종식 군수의 적극적인 의지로 전복 생산자가 참여하는 '완도 전복주식회사'를 만들어 전복 생산어가와 MOU를 체결, 안정적인 전복가격 형성 및 수급체계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06년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이후 초·중등 교육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활용해 외국어교육 5개 분야 18개 사업에 시비 317억을 집중투자해 지역내 글로벌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화순군은 '바이오 메디컬' 구축 지역인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일원 100만㎡를 2010년 11월 백신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총 1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헬스케어 연구소 건립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9년 대구면 사당리·수동리 일대(30만㎡)를 청자체험 교육 및 관광홍보사업을 위한 '고려청자 문화특구'로 지정했다.

김종식 군수는 "완도 전복산업 특구지정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해외에서도 완도전복의 가치를 인정받아 전복특구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으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여수=임문택기자 mtlim@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역특구 합동 연찬회'에서 지식경제부 기관표창을 받은 지자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식 갯지렁이 캐는 아낙들

신안군 압해읍 복용 3구 세촌마을 주민들이 바다낚시 미끼로 각광받고 있는 '바위털 갯지렁이'(일명 홍거시) 인공육성 양식장에서 출하준비를 하고 있다. 신안군은 내년도에 군유지에 추가로 갯지렁이 육성양식장을 조성,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안군 제공〉

진도 '멧돼지' 비상

논·밭 출몰 농작물 피해 月 30건

최근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가을철 추수기를 전후해 진도지역에 멧돼지와 까치 등 유해조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 피해도 늘고 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멧돼지들이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활동반경을 넓혀 민간 인근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벼·보리·콩 등 농작물을 뭉개거나 파헤치고, 고구마를 뽑아먹는 등 피해가 월평균 30건정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 박모(진도군 지산면)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까지 벌써 5~6번 넘게 멧돼지가 휩쓸고 가 농사를 망쳤다"며 "사람을 봐도 겁을 내지 않고 어미와 새끼 멧돼지가 떼로 몰려다녀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멧돼지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최근 '유해조수 구제단'을 출범했다.

유해조수 구제단은 보통 5~7명이 조를 만들어 사냥개를 데리고 포획에 나선다. 이들은 멧돼지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포획 준비가 되면 사전에 진도군과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 수렵에 나선다.

또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올무 제거 작업과 함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을 펼친다.

유해조수구제단은 내년 상반기에 군부대·경찰·진도군·한국전력공사와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노인대학 명강사 정종득 목포시장

노후·지역 비전 강의 호평

정종득〈사진〉 목포시장이 관내 각종 경로대학에서 건강한 노후와 지역 미래 비전을 심어주는 명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4월 양동 제일교회 경로대학을 시작으로 이달에도 북교동교회 노인대학과 목포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열띤 강의를 펼쳐 호평을 받았다.

정 시장은 노인대학 강의에서 일본 최고의 장수마을인 오키나와 노인들의 식습관을 예로 들며 "장수비결은 낙천적인 성격과 부지런한 생활자세, 절제있는 식생활"이라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시민정신을 가질 때 지역사회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목포의 미래비전을 역설했다.

한편 목포지역에는 현재 13개소의 경로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3000여명의 노인들이 국내 유명강사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진도군 특산물 유통 '대상'

진도군이 최근 '제4회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박람회'에서 특산물 유통부문 대상(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인터넷 온라인 판매업체인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주)이베이코리아 회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소비자 직거래 행사와 농·어촌 체험행사 등 새로운 판매망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농·수·특산물 판매 확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진 군수는 "대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 및 수도권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한 특산물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 북

김제 농기계센터 개관

70억 투입 첨단 장비 갖춰…수출산업 육성

국내 유일의 '첨단 농기계 종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김제에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22일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서 박성일 부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농기계 종합 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사업비 70여억원이 투입된 지원센터는 전북 농기계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립됐다.

특히 수출전략형 농기계 제품의 기술개발, 성능·신뢰성 평가,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내 농기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센터에는 내년까지 엔진성능 및 내구성 시험기, 차축 다이나모, 로드시뮬레이터, 소음·진동 측정장비 등 총 40종의 장비가 갖춰진다.

국내 최초로 농기계 실외 주행시험장도 갖추게 돼 거친 환경 속에서 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농기계 제품의 내구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김제 지평선 산단에 들어서 농기계 기업의 집적화는 물론 관련 기업의 유치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종합 지원센터의 개관으로 농기계 수출시장을 선도하는 전북 도내 농기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농기계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강철수기자 knews@

한달 빨리 온 산타 사랑의 열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원들이 지난 20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아이들 천국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원 추어탕 거리 '음식 테마거리'로

관광활성화 사업 선정

남원 추어탕 거리가 '음식 테마거리'로 조성된다.

남원시는 "추어탕 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음식 테마거리 관광활성화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지 선정은 전국 지역음식 테마거리 200개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남원 추어탕은 브랜드가치가 고유명사화되고, 추어탕 거리가 관광지인 광한루 원 주변에 집중돼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추어탕 재료인 미꾸리를 직접 생산하고 부재료인 시래기 가공공장을 갖추고 있어 좋은 재료확보에 노력을 기울이 것도 한몫하고 있다.

문광부는 남원 '추어탕 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전문컨설팅 업체 선정과 추어요리협회와 공동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 인프라 개선 ▲테마음식개발 ▲브랜드강화 ▲교육·경영개선 컨설팅 ▲여행사 팸투어 등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군립도서관 설계 당선작 확정

순창 군립도서관 신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순창군은 최근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모작 4개작품 가운데 당선작〈조감도〉을 결정했다.

당선작은 좀 더 예술적이고 도시미관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군민들의 편의에 중점을 뒀다.

군은 다음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내년 3월에 착공, 12월말에 준공하고, 2014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군립 도서관은 부지 2162㎡·연면적 1157㎡ 규모로 사업비 36억82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에는 보존서고·기계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도서정리실·독서실 등이, 2층에는 디지털 자료실·어린이실, 3층에는 열람실·휴게실·문화 강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순창군 문화관광과 이선효 과장은 "신축하는 군립 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생활정보 지식 등을 공유하는 정보기능 센터와 콘텐츠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내년 예산 5464억원

정읍시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5.5% (283억원)이 늘어난 5464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82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의료보호 등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01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이 599억원으로 올해보다 20억원이 증액됐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2012년보다 162억원이 증가한 4034억원 규모다.

규모별 편성내력을 보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 1196억원 ▲농림축산 분야 1032억원 ▲균형 있는 지역개발 견인사업에 535억원을 편성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남원시-소방서, 합동 화재 안전 점검

남원시와 남원소방서는 전통사찰 등 목조문화재 시설에 대한 합동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을 앞두고 크고 작은 전통사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시설 확보와 관리 여부, 누전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보완 조치한다. 또 문화재 주변의 화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문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과 사찰주변 등산시 금연 생활화를 통해 문화재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 기관·단체 고령농가 벼수확 돕기

정읍시 신태인읍 직원과 각 기관·단체, 주민 100여명은 지난 20일 일손부족으로 벼 수확을 포기한 고령 농가를 찾아 벼수확 합동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들은 백산리 이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농가 논 6600㎡에서 수작업으로 벼 수확을 도왔다.

수확을 도운 논은 지난 여름 폭우로 제방과 논둑이 유실되고 배수가 되지 않아 콤바인 작업이 불가능, 수확을 포기한 상태였다.

백남종 신태인읍장은 "단합되고 따뜻한 마음을 밑거름으로 신태인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뉴 새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순창군과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는 지난 20일 새마을지회 사무실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선진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뉴 새마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 새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참여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21세기형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이다. 군은 올해말까지 11개마을(1읍면 1마을)을 선정하고, 3년간 33개마을을 육성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21세기형 풀뿌리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군 보건소 '건강 드림 교실' 운영

부안군 보건소는 의료취약 사업장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건강 드림 교실'을 운영한다.

드림교실은 금연·절주 등과 같은 건강습관 실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내 장애인 근로작업장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5분 체조와 스트레칭 운동을 지도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교육·치아우식증 예방 등을 실시한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